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층무로 헤센스마트 112호  
대표전화 1800-9517 | 팩스 070-4009-9517  
[www.handure.org](http://www.handure.org)  
[www.chaebi.life](http://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 장례문의 1588-9517

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으로  
만드는  
새로운  
장례문화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인사말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더불어삶 상포계는 마을공동체에서 초상 때 드는 비용을 서로 도와 마련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계모임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혼탁한 상조시장의 폭리구조와 리베이트를 완전히 없애 조합원이 안심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돕습니다. 또한 선수금의 50%를 안전하게 예치하고 맞춤형 장례와 직거래공동구매로 비용을 대폭 절감합니다.

상포계는 맞춤형·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합니다. 또한 갈수록 고비용화·대형화·독과점화 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집이나 마을 공간을 활용한 ‘추모형 장례’를 확산합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지난 10년간 홀몸어르신들의 장수사진을 찍고 생애구술사를 기록하고, 저소득층 장례를 지원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리영희 선생, 김근태 전 장관, 장준하 선생, 백남기 농민 등 민주와 평화, 평등과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의 민주사회장을 치러왔습니다. 우리 조합의 나침반은 공동의 이익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례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존의 3일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조합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채비 장례’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삶을 풍부하게 가꾸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가장 좋은 ‘채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3일장 중심의 상포계 서비스에 ‘작고 아름다운 이별’의 추모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조합을 설립하고 성장시켜온 힘은 오직 조합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믿고 창립 정신과 운영원칙을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임직원



## 걸어온 길

### 2020년

- 1월 창립 10주년(1월 13일)
- 2월 추모형 작은장례 ‘채비’ 출시
- 6월 문화공간 ‘채비’ 개소

### 2019년

- 1월 <죽음이 삶에게 안부를 묻다> 출간  
(주)한두레 선불식할부거래업 폐업
- 2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로 사업  
양수양도
- 3월 고 문동환 목사 한신대학교장 겸수
- 5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6월 서울시 혁신형사업 선정  
(추모형 장례 사업모델 개발)
- 11월 화섬식품노조봉제인지회 업무협약
- 12월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민족통일장 겸수

### 2018년

- 3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
- 4월 ‘15억원 자본금’ 해결을 위한 TF  
구성 (홍보와 제도개선, 출자운동  
등 방향 설정)
- 5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지지성명 발표
- 6월 서울시와 공영장례서비스  
‘그리다’ 업무협약
- 8월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연합회 소속  
회원조합 출자(전환)운동
- 10월 협동조합제도개선  
10대 과제 국회토론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현안 포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 1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15억원 자본금’  
현안해결을 위한 협의 진행

### 2017년

- 1월 ‘민주·정의·평화의 수행자’  
고 정원 스님 시민사회장 겸수
- 5월 조합원 대상 프로그램  
‘기억노트-내 인생 돌아보기’
- 6월 엔딩노트 출간
- 7월 고 박종필 감독 인권사회장 겸수
- 9월 고 조영삼 통일운동가 시민사회장 겸수
- 10월 아이쿱생협 조합원 상포계 서비스  
업무제휴

### 2016년

- 1월 돈의동 사랑의쉼터에서 무연고자  
‘작은장례’ 겸수
- 6월 카카오톡이가기치 편당 ‘마을에서 함께  
치르는 작은장례식’
- 9월 ‘더불어삶’ 어플리케이션 출시
- 11월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 백남기 농민  
시민사회장 겸수

### 2015년

- 3월 구술 인터뷰집  
<나는 종로에 사는 사람입니다> 발간
- 6월 한겨레두레협동조합  
비전과 미션 수립
- 9월 연합회-서울조합 공동사무국 출범
- 10월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MOU체결
- 11월 종로구 무연고자 10명  
결연장례 서약식

### 2014년

- 3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법인 설립
- 4월 고 박문숙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민주사회장 겸수
- 5월 고 김용태 (전 민예총 이사장)  
민족예술인장 겸수
- 6월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 8월 고 이내창 열사 추모제
- 10월 고 성유보 희망래일 이사장  
민주언론인장 겸수

### 2013년

- 1월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법인 설립
- 3월 충북한겨레두레협동조합 법인 설립  
고 장준하 선생 겨레장 겸수
- 10월 평화와 통일의 사도 홍근수 목사  
통일사회장 겸수
- 12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법인  
창립총회

### 2012년

- 3월 고 허병섭 목사 민주사회장 겸수
- 7월 세계협동조합의 해 난장한마당 참가
-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 2011년

- 10월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참가
- 12월 민주주의자 김근태(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장 겸수

### 2010년

- 1월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준비위원회 출범
- 2월 <한겨레신문>에 상포계 조합원 모집  
첫 광고
- 10월 장사물품 및 장례 인력의 맞춤형  
직거래공동구매 방식 도입
- 12월 고 리영희 (전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민주사회장 겸수

### 2009년

- 4월 풀뿌리공제운동연구소  
<한국상조사업 현황과 대안>  
심포지엄 개최



## 장례문화 개선 활동



### 물품원가공개

직거래공동구매로 장례물품의 원가를 공개해 상조시장의 폭리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정직한 행사진행으로 비용은 줄이고 품격은 높인다.



### 작은장례

상업화된 장례 시스템에서 벗어나 병원 장례식장이 아닌 대안의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장례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 친환경 장례

음식과 술이 아닌 간소한 다과를 제공하고, 조화와 조의금 없는 장례를 실행해왔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 일회용품 안 쓰기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스텐리스 그릇에 국과 밥을 담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설거지를 해 다시 사용한다. 장례식장과 녹색장례를 약속하고 이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 성평등장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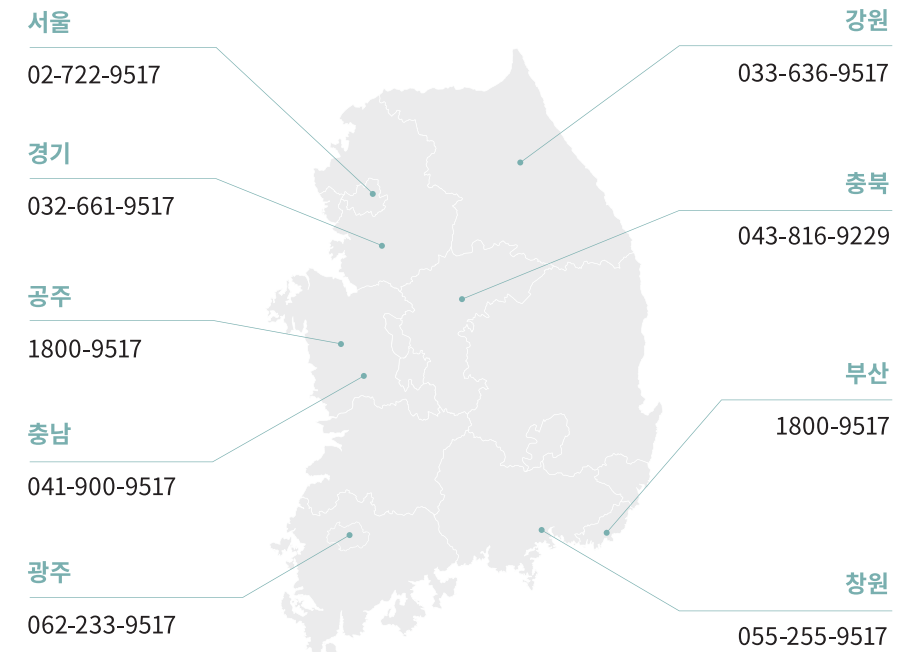
우리의 장례는 성평등문화 수준과 동떨어져 모든 절차와 의식에 있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우리 조합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현황

2019년 말  
기준



## 회원 조합



## 사회장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증진,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들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러왔다.

###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

2019년 12월 7일 오후 10시 57분, 한 평생 교사운동과 자주민주통일 운동에 몸 바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이 별세했다. 고인의 장례식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민족통일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평소 '사상은 뿌리 깊게, 표현은 낮고 알게, 연대는 넓고 넓게, 실천은 무궁토록'을 좌표 삼아 생의 마지막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 백남기 농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행사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317일간의 사투 끝에 2016년 9월 25일 오후 1시 59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운명하였다. 경찰의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로 장례를 지르지 못하다가 사망 42일 만인 2016년 11월 5일 민주사회장을 치를 수 있었다.



### 박종필 감독

2017년 7월 28일 오후 4시 10분 장애인·노숙인·세월호와 함께 했던 영상활동가 박종필 감독이 운명했다. 고인의 장례식은 인권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장애인들에게는 '금관예수'였고, 다큐멘터리리스트에게는 존경받는 선배이자 스승이었으며, 세월호 가족에게는 은인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우리 곁에 있어서 고마웠다고 말한다.

### 김용태 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을 이끌었고, 민족미술협의회 초대 사무국장, 민예총 초대 사무처장을 지낸 '민중 미술계의 일꾼' 김용태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이 2014년 5월 4일 오전 5시 30분께 별세했다. 향년 68세. 문화예술계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용태 형'으로 불리며 문화계의 굵은일을 도맡아했던 고인의 장례는 민족예술인장으로 치러졌다.

### 이내창 열사

이내창 열사는 1980년대 의문사한 학생운동가이다. 고인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을 지내던 1989년 8월, 거문도의 유림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채 의문사 사건으로 남아 있다. 2014년 8월 15일, 광주 망월묘지에 묻혀 있던 그의 유골을 경기도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으로 이장했다.

### 장준하 전 <사상계> 발행인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반대투쟁을 벌이다 숨진 장준하 선생의 유해가 2014년 3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장준하공원에 안장됐다. 2012년 8월 선생 묘소의 옹벽이 무너져 이장하는 과정에서 두개골 함몰 골절 등 흔적이 최초 공개되면서 타살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2013년 3월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의 두 번째 장례, 거례장이 치러졌다.

### 홍근수 목사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홍근수 목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고문)는 2013년 10월 7일 오전 9시 45분, 75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실천적 목회자로 평가된다. 1987년 향린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2003년 5월까지 시무했다. 고인의 장례는 통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011년 12월 30일 오전 5시 31분 별세했다. 향년 64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초대대장으로 활동하다 검거돼 이근안 등 경찰관 5명에게 22일 동안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고 재판과정에서 이를 폭로하였다. 평생 민주주의를 실천한 고인의 장례는 '민주주의자 김근태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 | 백남기 사회장

## 운영 안내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인간다운 삶, 존엄한 죽음’을 사명으로 장례식장의 폭리구조를 바꾸고 극단적으로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 장례문화를 혁신하고 추모형 장례와 채비학교, 돌봄사업 등 고령화 1인가구시대의 대안을 만들어간다. 다음과 같은 5대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 직거래공동구매와 맞춤형

직거래공동구매로 모든 장례물품을 원가로 제공하고, 형편에 맞는 맞춤형 장례로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장례지도사와 접객도우미 등 일꾼들은 같은 조합원으로 유족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한다.

3

### 조합원 복리 증진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사업을 통한 수익은 오직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홀몸어르신과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5

### 장례문화 개선

상조회사와 병원 장례식장 중심의 3일장 이외에 추모형 작은장례를 실천한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례문화 개선 활동에 힘쓴다.

2

### 뒷돈과 리베이트 배격

상조시장에 만연한 뒷돈과 리베이트를 철저히 배격하고, 추가 요구와 끼워 팔기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정행위 적발 시 장례비용 전부를 반환한다.

4

###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

조합비의 50%를 의무적립하며 철저한 내부통제로 안전을 보장한다. 모든 재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언제나 열람 가능하다.

## 가입 안내

### 더불어삶 상포계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다. 상포계는 상호부조의 힘으로 상장례를 치러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자립적 협동조직이다. 더불어삶 상포계는 극단적으로 상업화된 상조사업을 공동체 장례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장례서비스이다.

### 가입 방법



#### 홈페이지

www.handure.org



#### 전화 상담

1800-9517  
1588-9517



#### 회원조합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충남, 충북,  
강원, 창원, 공주

### 출자금과 상포겅돈

- 출자금: 출자금을 1구좌(1만원) 이상 1회 납부하며 이는 조합의 종잣돈이 된다.
- 상포겅돈: 장례에 대비해 매달 상포겅돈 3만원을 적립한다.
- 신규 조합원 교육을 이수하고 조합운영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 함께하는 단체들

I · SEOUL · U



icoop 생협



을지대학교  
EULJI UNIVERSITY

### 사회적경제조직

아이쿱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활협동조합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논골신탁  
동작신탁  
은빛기획협동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범씨구들장협동조합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주요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대문구/동대문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시립동대문노인복지관  
돈의동 사랑의쉼터

### 기업

(주)아이엠티비  
(주)우진교통  
(주)센미디어  
훈정보통신  
유니온복지물

### 노동조합

9호선메트로노동조합  
하나금융투자노동조합  
서울서틀버스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대신증권노동조합  
장그래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서울봉제인지회  
JT저축은행노동조합

###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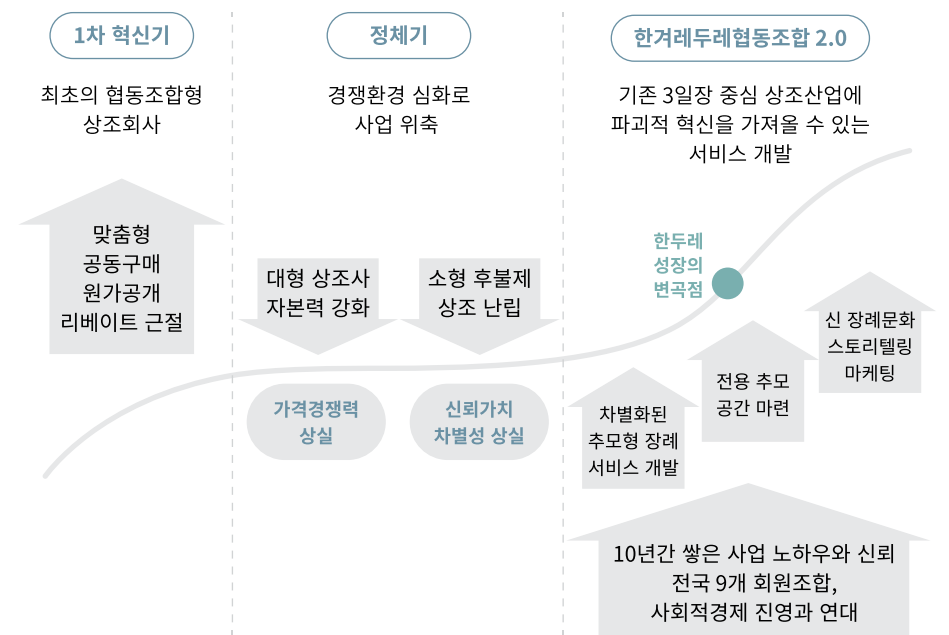
을지대학교

### 사회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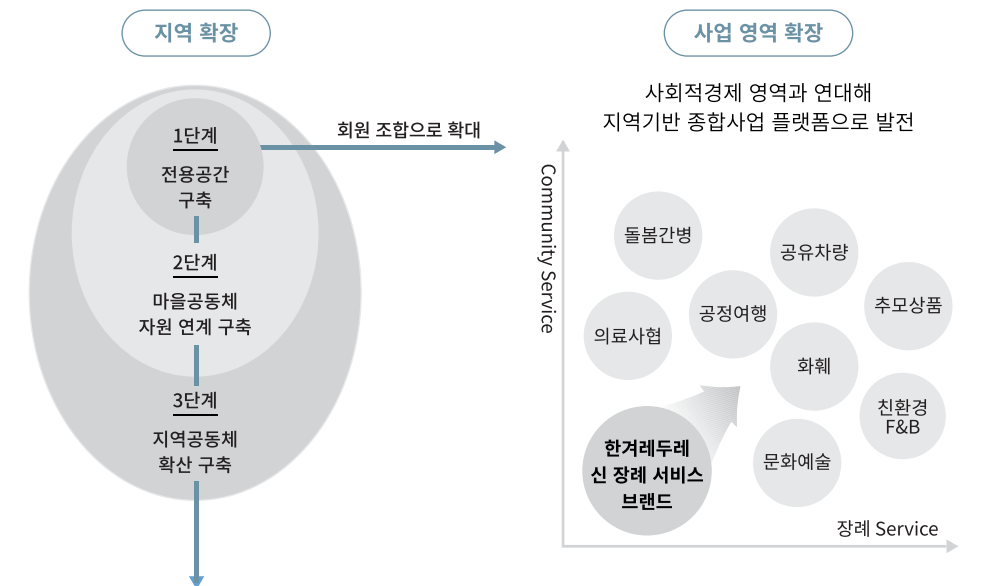
한국장수축구협회

## 한겨레두레 2.0

### 한겨레협동조합 2.0시대를 위한 청사진



### 장례서비스 상품과 전용공간의 확장



## 채비 장례

채비장례는 추모와 애도, 위로가 있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혁신적인 작은장례서비스 브랜드입니다.



채비 로고는 '매듭'과 '흰나비'가  
모티브입니다.

'매듭'은 삶의 마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이며 '흰나비'는 죽음 이후 우리 존재를  
아름답게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 가족 추모식

장례의 본질은 고인을 깊이 애도하고 남은 가족을 위로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고인을 기억하는 지인이 모여  
품격 있는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 추모 묵념  
추모식을 시작하며  
묵념
- 약력소개  
상주가 고인의 삶을  
간략히 소개
- 추도사  
고인과 가까웠던  
지인이 추도사 낭독
- 추모영상  
고인과 유족의  
사진으로 추모영상  
제작, 상영
- 추모편지  
고인 가족의  
애도 편지 낭독
- 메모리얼 포스트  
고인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작성
- 헌화  
가족이 헌화 후  
조문객이 헌화
- 유족인사  
상주 또는 유족  
대표가 감사 인사

\* 필요시 종교행사 포함 구성

## 1일 가족장

기존 3일장 대비  
약 36% 합리적인 가격

단 하루 빈소를 차리는  
작고 아름다운 장례식입니다.

### 장례절차



### 상품특징



## 무빈소 가족장

빈소 임대료, 식대 비용 0원

빈소 차림없이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 장례절차



### 상품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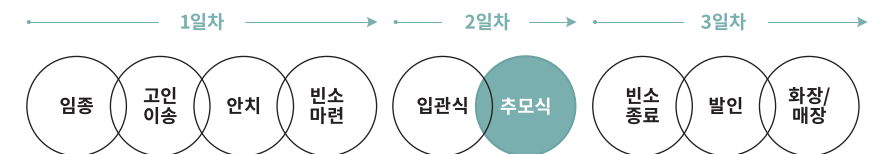


## 3일장

폭리는 없애고, 3일장 그대로

기존 폭리와 허례허식을 없애고  
추모의 깊이는 더했습니다.

### 장례절차



### 상품특징





## 채비 학교

채비학교는 추모형 장례를 선도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삶과 죽음을 공부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준비하여 맞이하는 죽음’, ‘의식은 간소하게 추모는 깊이 있게’를 모토로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과 마지막을 설계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 채비강좌

- 개요**
- 죽음과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고 삶을 돌아보는 학교
  - 삶, 죽음, 기억, 치유 등의 키워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기훈련
  -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설계해 보는 학교
- 교육 목표**
-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일깨우며 주어진 시간과 생명에 대한 인식 고양
  -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

#### 프로그램 예시 1

회차	주제
1	삶과 죽음의 이해
2	슬픔과 애도 감정 이해
3	기억노트1: 버킷리스트 / 묘비명
4	기억노트2: 유언장 / 장례 손님 작성
5	가족사 쓰기: 유품 스토리텔링/영상 만들기
6	이별하기와 마음 치유

#### 프로그램 예시 2

회차	주제
1	노년기의 이해
2	트라우마 치유하기
3	사진으로 화해하기
4	자연에서 늙어가기
5	노년의 밥상
6	간단한 간병 노하우

## 채비캠프

- 개요**
- 부모님과 함께 하는 채비캠프
  - 잊지 못할 추억 만들기,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 의미를 담은 마무리 등
  - 조합원 가족 대상
- 교육 목표**
- 자신의 특성을 알고 상대방 이해하기
  - 가족 상호간 대화를 통해 화해의 시간 갖기
  - 죽음을 이해하고 존엄한 죽음 준비하기

#### 프로그램 예시 (2박 3일)

일정	내용
1일차	① 채비의 이해 ② 모심과 살림
2일차	① 별자리로 본 나 ② 부모와 화해하기
3일차	① 치유와 힐링 체험 ② 죽음의 이해

## 유족 심리치유

- 개요**
- ‘슬픔이 슬픔에게’ 그리프 케어
  - 이별을 경험한 이들의 슬픔 이해 시간
  - 장례를 치른 조합원 대상
- 교육 목표**
- 죽음 이해와 이별 수용하기
  - 장례 후 찾아오는 다양한 감정 극복하기
  - 자신에게 찾아오는 감정의 인정을 통한 삶의 에너지 회복

#### 프로그램 예시 (2박3일)

일정	내용
1일차	이별과 애도의 이해
2일차	슬픔과 안녕하기, 좋은 이별
3일차	말하기
4일차	긍정의 에너지, 잘 살아가기

※ 모든 프로그램은 예시이며 요청내용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사명

### 인간다운 삶 존엄한 죽음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삶은 풍부해지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겨레두레는 삶의 결과인 죽음을 준비하고 상호부조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협동조합입니다. 극단적으로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이를 통해 나눔, 신뢰, 소통이 근본이 되는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삼습니다.

### 협동조합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6. 협동조합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죽 음 이 삶 에 게 안 부 를 문 다

|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 그리고 잘 보내는 일에 대하여 |

‘죽음이 삶에게 안부를 묻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펴낸 책입니다. 필자는 모두 조합원이며 판매수익은 저소득층장례지원에 쓰입니다.

